# 美国 키보드 업계의 不況

미국의 키보드 업계는 컴퓨터 불황의 장기화와 極東 메이커의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탈락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AMP와 스택폴 両社는 키보드 事業에서 철수하고 체리社는 생산을 완전히 해외에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벡튼딕슨社는 사업부를 X셀 컴퓨트론社에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제너럴인스트루먼트社외 数社도 키보드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내 놓았다.

미국 최대의 키보드 外販 메이커인 키트로닉社까지도 코스트가 드는 미국에서의 Low-end 키보드 생산을 삭감하기 위해 NMB 및 하이텍의 母企業인 일본의 미네베아社와 조인트 벤쳐 設立에 관해 교섭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Honeywell社의 마이크로 스위치 사업부문 티딘스판매부장은「당사의 풀 트러블 키보드와 전통적으로 競合하고 있는 대부분의 메이커가 생산량 삭감과 사업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더우기「금년은 실제로 기업탈락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해가 된다」고 부언하고 있다.

「당사는 미국내에서 民需用 키보드를 생산할 수가 없으며 아시아의 공급업체와 경쟁을 할 수도 없다」고 키 트로닉의 루이스 G 저클 회장은 말하면서 동사가 民需用 키보드 생산을 동사의 대만공장에 이관하며 그대신 국내생산은 부가가치가 높은 커스텀 키보드 내지 마우스 등 다른 入力 장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미네베어와의 교섭 소문에 관해서는 제휴관계에 있는 일본기업과 초보적인 협의를 한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그 기업명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네베어는 키트로닉용으로 동사의 태국공장에서 民需用 키보드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사의 자회사인 NMB는 키보드의 대부분을 태국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83년에 미네베어에게 매수당한 미국의 하이텍社로 내보낼 제품 생산도 하고 있다.

極東키보드메이커의 미국에서의 売上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NMB라든지 작년 여름 애플 컴퓨터社로부터 키보드 공장을 매수한 알프스電気 등 日本메이커가 키보드 생산을 강화한 결과 급속히 확대했다. 미국 키보드메이커 각사는 컴퓨터 売上이 떨어져 가스터머인 많은 퍼스널 컴퓨터 메이커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며 더우기 해외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키트로닉의 저클회장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다른 원인으로서 세금이 비싼 점과 국내생산과 관련된 多額의 코스트 등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미국 키보드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키 트로닉은 과거 2년간에 걸쳐 매상이 부진할 퍼스널 컴퓨터 메이커의 빚을 相殺하기 위해 일시해고와 기타 삭감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저클회장은 최악의 컴퓨터 불황이 끝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Honeywell의 티딘스씨도 저클회장과 같은 의견이다.「시황은 회복 경향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Honeywell社 마이크로 스위치 事業部의 M 티딘스 판매부장은 최근 수개월간 미국 키보드 메

이커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 대만 메이커의 「이름없는」키보드의 범람이라고 지적, 정보통들도 많은 대만 메이커가 미국에서의 키보드의 판매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이 대만으로부터의 경쟁은 수요가 가장 떨어졌던 때에 높아졌던 만큼 일부 미국 메이커는 이미 키보드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스택폴社는 작년 12월, 동사 카스터머의 최후의 주문을 받았으며 금년 1/4분기 중에 키보드 생산을 중지할 예정이다. 동사는 앞으로 스위치 및 抵抗器사업에 힘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한다.

AMP키보드 테크놀로지社는 풀 트러블 메인브렌 키보드 사업에서 철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메인브렌 스위치 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사는 풀 트러블 메인브렌 키보드가 해외 경합 메이커의 제품과 가격면에서 경합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크社는 풀 트러블 메인브렌 키보드의 시장성을 강조한다. 메인브렌은 「80년대 후반의 테크놀로지이다」라고 同社의 키보드 프로덕트사업부 B. 헨게슈 판매부장은 말한다. 동사는 IBM을 비롯한 대형 OEM의 대부분이 풀 트러블 메인브렌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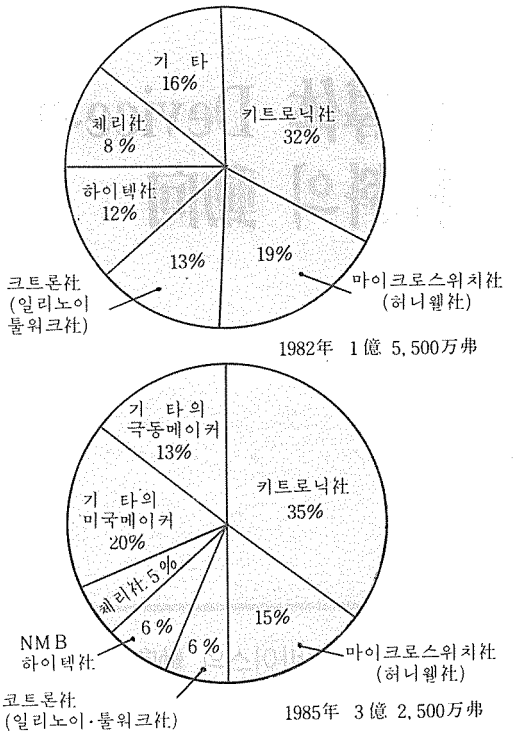
동사는 현재 많은 다른 미국 키보드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코스트가 싼 대만에서의 사업을 확대중에 있다.

제품가격의 하락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 키보드 메이커가 고민하고 있다. 하이텍社 M.D. 존스 판매과장은 「가격인하 경향이 계속되면 일부의 메이커는 収支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것이다. 중소 메이커는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메이커의 움직임으로서는 미네베어가 앞서 하이 텍社를 똑같이 자회사인 NMB社에 흡수했다. 알프스電気는 작년 애플로부터 買収한 캘리포니아주 가든 그룹 공장에서 애플에 내보내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제조하고 있다.

체리社는 풀 트러블 키보드 생산을 일리노이州 워커건의 공장으로부터 서독 오이엘바하의 완전자회사에 이관하고 있다. 동 자회사는 키보드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P. 체리 社長은 최근의 시장 동향에 관해 「퍼스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시장의 부진에 따라 当社 커스터머가 해외 메이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키보드市場 占有率




일리노이 툴 워크스社가 키보드 사업부인 코트론을 매각키 위해 내놓았다는 소문이 있으나 동사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코트론의 R. 인그린스부사장은 동사업무가 훼라이트 코어 키보드의 생산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코스트 효율이 높게 제조할 수 있는 대만에서 하고 있다. 동부사장은 앞으로도 기업탈락이 계속되어 수개社와 대형 해외 메이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Advanced Input Devices社의 J 오버피 사장은 「폭넓은 제품을 갖춘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키보드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사는 최근 시황의 호전에 따라 매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맥시 스위치社의 C. 스타우트 사장도 「작년 7월 이후 B/B Ratio (수주/출하비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